



전남지역 당선자와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종택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15일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당선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초심 잊지않겠다... 전남 의대 꼭 유치할 것”

교례회 이모저모

인사 나누며 기념촬영 '축하의 장' 이개호·서삼석 전남일보와 인연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기회 감사

● 당선자 전원 참석 '화기애애'

15일 전남일보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당선자 18명 전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은 시작 전부터 당선자와 단체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광주·전남 당선자들 중 초선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탓에 새내기 당선자들은 참

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얼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 방명록 작성·포토존 '인기몰이'

당선자들은 교례회 본 행사에 앞서 4층 로비에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당선자들은 저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를 적었다. 한 당선자는 “미리 언짢으면 멋진 말을 준비를 해왔을텐데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된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본 행사장 앞에 위치한 포토존은 붐비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당선자들에 축하인사를 건네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립의대 유치 놓고 당선자 '신경전'

소감 발표 시간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당선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박군택 광산갑 당선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기 있는 모두가 협력할 때 해결될 수 있다”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당선자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는 당선자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원이 목포 당선자가 “전남의대는 목포로 유치해주시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당선자는 “이미 도청부터 교육청, 경찰청 등 많은 공공기관이 목포 등 서남권에 자리잡고 있다”며 “의대만은 꼭 순천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당선자 재치있는 입담에 웃음
당선자들의 재치있는 입담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 지은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당선자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최고령 박지원 당선자에게 양보했다”

고 농담을 던졌다. 뒤이어 소감 발표에 나선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자는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다”라고 첫 마디를 때 장내를 웃음짓게 만들었다.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당선자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개그 소재를 끌어와 “다른 당선자들의 포부를 듣다보니 ‘농도 전남’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이냐는 의문이 생겼는데 답이 나왔다. 나 서삼석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남일보와 특별한 인연 강조

전남일보와 특별한 인연을 강조한 당선자들도 있었다. 유일하게 2016년, 2020년에 이어 이번 2024 교례회까지 세 차례 연속 참석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당선자는 “2016년 당시 광주·전남 지역 당선자가 저를 제외한 모두가 국민의당 소속이었다. 혼자 살아남아서 눈물을 흘리며 당선자들과 인사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며 “우여곡절 끝에 세번 연속

으로 참석하게 됐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역민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당선자도 “전남일보 장학생 출신”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전남일보에 고정칼럼을 게재했다”고 말해 좌중의 관심을 끌었다.

● 교례회 행사 마련에 고마움 전달

당선자들은 이번 교례회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광산을 민형배 당선자는 교례회를 마치고 “당선자들이 광주·전남 지역사회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준 전남일보에 감사하다”며 “교례회는 당선자들이 마음가짐을 갖추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였다. 지역 인사들과 의견을 묻고 나눈 오늘의 행사야말로 향후 정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나다운·박한·윤준명·수습기자

“부드러운 강함으로 통합의 정치 할 것”

女 국회의원 당선자 만남 '화제' 복구를 전진속·순천을 권향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는 특별한 후보들 간 만남의 장이 펼쳐졌다.

광주·전남 각각 유일한 여성 당선자인 광주 복구를 전진속 당선자와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권향엽 당선자의 만남이었다.

교례회장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진속 당선자는 권향엽 당선자에게 “권향엽 당선자와 저, 각자 다른 과정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였지만 바닥에서부터 성장해온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여성만의 섬세함, 부드러운 강함으로 통합의 정치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사람의 협치를 통해 광주·전남 어느 지역이든 차별이 없는 곳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건넸다.

권 당선자 역시 전 당선자에게 “전진속 당선자는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으로서 시작해 청와대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 그 거름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잘 해내리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복구를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당선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광주·전남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진속 당선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시의원을 거친 복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유일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권향엽 당선자는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4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으로 광양이 고향이다.

금도초·태금중·순천여고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은지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지역 교육 현안 해결·발전에 함께 해달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당선자 교례회 자리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발전 기반으로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근본이다.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교육감으로서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 소중한 바램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모든 학생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교육에서 차별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개최 응원”

제22대 국회의원회에 당선되신 광주·전남 지역 당선자 여러분께 전남교육가족과 더불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깨끗한 선거 운동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하신 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

전남교육은 빠르게 다가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을 일궈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오는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



람회’를 열어 그 청사진과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대주제로 펼쳐질 이 박람회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교육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선진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김혜인 기자